

1 법 정비 지원 사업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무상 원조의 일환으로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법 제도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JICA로부터 민상사법 분야의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당 재단의 임원과 법무성, 기타 관계자의 협력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또 상대 국가의 사법 관계자 및 방일한 연구원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장차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

일본 최초의 법 정비 지원 프로젝트는 1996년에 시작된 베트남에 대한 것입니다. 이후 20년 이상에 걸쳐 지원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법·사법 개혁 지원 프로젝트'가 2020년 12월 말에 종료되었고,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예정으로 '법 정비·집행의 질 및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1999년부터 법 정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캄보디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초안을 만드는 데도 일본이 협력하였습니다. '민법·민사소송법 보급 프로젝트'와 '민법민사소송법 운용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2022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의 예정으로 '법·사법 분야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2003년부터 법 정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률 인재 육성 강화 프로젝트'와 '법 지배 발전 촉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2023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의 예정으로 '법 지배 발전 촉진 프로젝트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007년부터 법 정비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법적 일관성 향상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고, 현재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예정으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입안자 능력 향상 및 분쟁 해결 기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 정비 지원 대상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민상사법 분야에서 일본과 각국의 사법, 법조, 학술 관계자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합니다.

2 심포지엄·세미나 사업

법 정비 지원 대상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민상사법 분야에서 일본과 각국의 사법, 법조, 학술 관계자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합니다.

●●중일 민상사법 세미나

중국과 민상사법 분야에서 이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96년 당 재단 설립 이래 중국과 일본에서 매년 번갈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법 제도와 관련한 최신 동향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동시에,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일 민상사법 세미나 2019년 11월 개최(도쿄)

●●아시아·태평양 민상사 비교 법제 연구 심포지엄

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학자와 실무자를 초청하여 민상사법 분야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민상사 비교 법제 연구를 종합 정리하는 발표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포럼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포럼(ABLFL)은 당 재단도 설립 단체의 일원이 되어 2019년에 창립되었고, 아시아와 일본, 민과 관(구체적으로는 변호사나 학자, 기업 법무 담당자와 같은 민과 법원이나 법무성과 같은 관), 그리고 각 세대를 연결하는 3개의 가교가 되어 비즈니스 관련 법률부터 인권 관계까지 폭넓게 아시아의 법 제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는 장/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테마로 한 것을 포함하여 2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심포지엄

일본 정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주를 '비즈니스와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비즈니스와 인권'과 관련한 많은 세션과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당 재단도 일본 ASEAN 우호 협력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비즈니스와 인권'을 주최하고, '비즈니스와 인권' 분야에서의 인권 실사의 실천, 소수자 보호, 법률가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의 전문가와 정부 및 기업의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토론을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법무성 법무종합연구소가 주최한 사법 외교 각료 포럼 개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 '비즈니스와 인권' 공개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자로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민사법 및 상사법 분야의 특정 테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비즈니스와 인권'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민상사 비교 법제 연구

간사이 지역의 학자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도산 법제
2.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기업 도산과 담보법
3.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ADR 상황과 전망
4. 아시아 국가의 지식재산권 행사(엔포스먼트)
5.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 M&A 전망
6. 아시아의 주주 대표 소송 제도 실정과 주주 보호
7. 발전하는 아시아의 감사 제도 실정과 과제
8. 아시아 지역의 회사 정보 제공 제도 실정과 과제
9. 동남아시아 4 개국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10. 동남아시아 4개국의 조인트 벤처 법제와 실무 대응
11. 동남아시아 4개국의 부동산 법제와 실무 대응

2024년도부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 법제와 실무 대응에 관한 비교'를 테마로 한 연구를 2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파트너십 공동 연구

1999년부터 매년 한국의 법원 직원 중에서 선발된 한국 측 연구원과 일본의 법무성·법무국 및 법원 직원 중에서 선발된 일본 측 연구원이 민사 행정 제도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션'과 '한국 세션'을 마련해서 양국의 연구원들이 상대 국가를 상호 방문해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인권' 기획

유엔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및 인권 이행 지침'은 '비즈니스와 인권'과 관련하여 요즈음 모든 국가 및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세계적인 실무 관행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침투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계몽 활동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 이행 지침의 기업 책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해석 매뉴얼'을 번역해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를 작성해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OHCHR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 해설서 2.0 기업용 지침서'를 번역하고, 이 지침서의 '활용 지침'도 작성해서 함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 정비 지원 관련 공동 연구

재단은 법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법무성이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 연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보·공표 자료

- 당 재단 홈페이지(<https://www.iccl.or.jp>)에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지 'ICCLC'의 형태로 이사회, 평의원회의 내용,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 보고, 결산 등 재단 활동 및 재정 상태
 - 'ICCLC NEWS'로서 News Letter 스타일로 세미나·심포지엄 등 성과물
 - 업무·재무 등에 관한 자료
 - 재단 임원 기고 기사 등

홈페이지: <https://www.iccl.or.jp>



회원 모집

■법인회원 연회비

1계좌 20만 엔으로 하고, 1회사 1계좌 이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입에 대한 문의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

당 재단은 2013년 3월 18일에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받아 동년 4월 1일 공익재단법인으로의 이행 등기를 완료.



회장
나카무라 구니하루
스미토모상사 주식회사 특별고문

2024년 3월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본 재단은 1996년 설립 이래 법무성과 JICA, 기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법 제도 정비, 분쟁 해결 수단 확립, 법조 인재 육성 등의 지원 사업에 민간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가 및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의 경제 발전과 법률 및 사법 제도 정비의 진전 등 법 정비 지원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도 대응하면서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오노 고타로
변호사
전 법무사무차관·검찰총장

2017년 6월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더욱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인재·물자·정보의 교류는 그 속도가 가속되어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낳는 한편, 지역적 빈부 격차 확대와 지구 환경 악화 등 부정적 측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법 원칙과 규정을 확인하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재단은 이를 위한 기초적 조건으로서의 정보 교환, 법 정비 지원, 인재 육성 훈련 등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쿄 메트로 긴자선·난보쿠선(다메이케산노역)
9번 출구(다메이케 교차로) 경유 도보 3분

ICCLC

공익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우)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1초메 3번 5호
아카사카 아비타시온 빌딩
TEL: 03-3505-0525 FAX: 03-3505-0833

사무국장 아오키 히로마사
E-mail: icclc-sa@js5.so-net.ne.jp
홈페이지: <http://www.icclc.or.jp>



(2024.8)